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태도를 파악하고,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교 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및 연민정서가 높고, 권위주의 경향성, 순혈주의정체성 및 자민족 중심주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0대 이상의 비교적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낮은 연령의 교사들에 비해 권위주의 경향성, 순혈주의정체성 및 자민족중심주의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긍정적 정서태도, 문화민족 정체성 및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없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가 높고,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에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및 문화민족정체성이,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에는 권위주의경향성과 불확실성회피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행동의 측면 중 가벼운 관계요인에는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문화민족정체성 및 자민족중심주의가, 친밀한 관계요인에는 순혈주의정체성과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중·고등학교 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지도 및 교사대상 다문화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국제결혼가정자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고정관념, 사회적 가치, 다문화교육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8 고유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보고서의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및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빌딩 9/10F, Tel : 02-2188-8831, E-mail : yangkm68@hanmail.net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문화화 되어가면서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및 기타 외국인들의 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2009년 현재 1,106,884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도의 891,341명 대비 215,5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비율로 보면 전년대비 24.2%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2009). 그에 따라 국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사회의 주요관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18,796명으로 2007년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84.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이 11.7%, 고등학생이 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90.2%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러나 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수이고, 만 6세 미만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그보다 훨씬 많은 61,700명이라는 통계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몇 년 이내에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훨씬 더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들이 소수집단화 되어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천이기에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고 있는 기본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

제가 된다(김혜숙, 2007).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Bennet, 2007). 교사가 가지는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 수도 있으며(유영식, 2009), 교실 내에서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집단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속히 다문화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 내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본인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다문화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막연히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없고, 교육자료나 환경도 부족한 것이다(정선희, 1997). 오히려 학생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지도해야 할 교사 자신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장보운, 2009), 타문화나 타인종에 대한 접촉과 관심, 지식의 정도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이정우, 2007).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스스로 다문화적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다문화적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으며,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최충욱, 모경환, 2007). 실제 초등교사의 문화 간 감수성을 분석한 김옥순과 전성민(2009)의 연구에서는 Hammer와 Bennett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검사(Intercultural Sensitivity Inventory)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실

시한 결과, 대부분이 문화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타문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는 수준인 부정/방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¹⁾.

교사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고정관념 및 편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결과 학생은 교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내면화시켜서 본래 존재하지 않던 고정관념 및 편견적 특성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아닌 다수집단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고정관념 및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의 태도를 반영하며(Banks, 2002), 특히 아동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 등이 속한 문화, 그들의 견해 및 태도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Gomez, 1991). 따라서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장면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나아가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 일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이 있는데, 조혜영 외(2007)의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설동

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를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차별적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당사자 역시 그러한 차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 주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양계민, 2009a)에서는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수집단 중에서는 비교적 수용적 대상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청소년의 태도에 대한 연구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포함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국내 연구로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2008)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측면이 아닌 그들에 대한 수용도, 관심도, 배려의사 등에 대한 연구였다. 물론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이나 관심, 배려의 의사에 대한 조사도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고정관념)과 감정(편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된 가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1) Bennett의 문화 간 감수성 발달단계는 총 6단계로 부정이나 방어의 수준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1, 2단계에 해당한다.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김혜숙, 2007).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집단 사람들 및 관련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한다면 그들을 돕는 일이나 관련정책이 그러한 가치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적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교육 또는 학교교육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yge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및 사회적 거리감 등의 태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ambivalent racism) 또는 혐오적 인종주의(aversive racism)태도는 미국의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국내의 연구로는 민경환(1989)이 권위주의 경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소수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으며,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는 Schwartz(1992)의 가치척도를 사용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권력가치가 높을수록 약자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편주의 가치는 반대로 약자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약자집단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태도를 예측하였고, 자가지도 가치는 약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상황에서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두었는데,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가치는 권위주의, 불확실성 회피경향성, 한민족 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이었다. 우선, 권위주의 성격 특성은 Adorno, Frenkel-Brunswil, Levinson, 그리고 Sanford(1950)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인지적 경직성, 애매함을 못 참는 성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Block & Block, 1951; Frenkel-Brunswik, 1949; Rokeach, 1948).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유태인(Adorno, et al., 1950), 흑인(Altemeyer, 1998; McFarland & Adelson, 1996, 1997; Whitley, 1998), 미국 원주민(Altemeyer, 1998), 여성(Altemeyer, 1998; Duncan, Petersom, & Winter, 1997), 동성애자(Whitley & Lee, 2000), 장애인(Noonan, Barry, & Davis, 1970), AIDS환자(Cunningham, Dollinger, Satz, & Rotter, 1991; Peterson, Doty, & Winter, 1993)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09a). 국내 연구에서도 권위주의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호남인, 빈곤계층,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민경환, 1989;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호, 1999; 최현주, 정진경, 1996). 따라서 교사들이 지닌 권위주의경향성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은 ‘불확실과 모호함에 대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Hofstede, 1980)로,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정도를 말하며 비체계적인 상황보다 체계적인 상황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높은 문화에서는 정형화된 삶을 위해 규칙이나 형식을 중시하며(Hofstede, 1995; Mooji & Hofstede, 2002), 개인이나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와 혁신성이 높지 않아 평가받지 못한다(Rhyn, Teagarden & Panhuyzen, 2002). 이러한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의 강한 정서가 소수집단에 대해 표출되면 외국인공포증(xenophobia) 또는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나는데, Hofstede(1980)는 이러한 외국인혐오증이 국가수준으로 나타나면 맹목적 애국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한민족 정체성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78). 따라서 한민족 정체성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인이 아닌 외집단과 구분함으로써 한민족에 속한 자신에게 긍정적인 정체감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계민(2009b)은 한민족정체성을 문화민족정체성과 순혈주의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문화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의할 수 있고, 순혈주

의 정체성은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가능한 단일민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민족정체성은 다문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차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민족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양계민, 2009b)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혈주의정체성이고 문화민족정체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교사집단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자민족중심주의는 한민족정체성과 더불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집단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자신과 다른 집단은 배척하고 동일한 집단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전경숙, 박혜정, 2005). 따라서 한 집단 고유의 윤리, 국가의 상징성 및 가치로써 자존심 형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다른 집단의 상징을 경멸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Levine & Campbell, 1972). 이런 면에서 자민족중심주의는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의 연구에서도 자민족중심주의가 약할수록 외국인에 대한 수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민족정체성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에서 ‘종족배제주의’라고 언급한 개념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이다. 종족배제주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민족·인종적 외 집단에 대해 일반화된 비우호적 견해’를 말하는데(EUMC, 2005), 보수-진보 성향과 같은 가치가 종족적 배제주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민족의식이 강할수록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정미 외, 2007). 또한 양계민(2009b)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성이 낮을수록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족적 배제주의는 원래 총 10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이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낯설고 생소한 내용이 많아서, 국내에서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등이 한국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저항’, ‘다문화사회의 한계’, ‘이주자 시민권 반대’,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 등 총 5개 요인으로 재구성한 바 있다. 이 중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원래 황정미 외(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명명한 요인인데,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문화가 더욱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 등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종족적 배제주의 요인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지니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상 적절한 지도 제공에 도움을 주고 교사대상 다문화교육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분석할 때 성별, 연령별, 담당학급별, 접촉수준별 차이를 분석의 틀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이론적 근거보다는 현실적 활용도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연구결과를 실제 학교장면에서 적용할 때, 가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약하고 비교적 수용성이 높은 집단을 찾아내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담임교사나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등을 배치할 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방 법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총 140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440명이였다.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52명(11.8%), 중학교 교사가 188명(42.7%), 고등학교 교사가 200명(45.5%)이었고, 성별로 보면 남자교사가 191명(43.4%), 여자교사가 247명(56.1%), 무응답이 2명(5%)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의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 전라, 충청, 강원 순이였다. 도시의 크기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237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거주자가 132명(30.0%), 시군구 지역 거주

표 1. 교사들의 배경적 특성 분포		명(%)
배경변인		빈도(%)
성별	남자	191(43.4)
	여자	247(56.1)
지역	서울	82(18.6)
	경기	116(26.4)
	경상	119(27.1)
	전라	58(13.2)
	충청	49(11.1)
	강원	16(3.6)
	학교 급	초등학교
	중학교	188(42.7)
	고등학교	200(45.5)
도시크기	대도시	237(53.9)
	중소도시	132(30.0)
	시군구	71(16.1)
접촉여부	비접촉학교	394(89.5)
	접촉학교	46(10.5)
총		440(100)

※ 무응답은 제외

자가 71명(16.1%)이었다. 이 중 비접촉학교의 교사들이 394명(89.5%)으로 대다수였고 접촉학교 근무교사들은 46명(10.5%)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고,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체 140개 학교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로 총 15개 학교였다.

조사절차

본 연구는 2008년 5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적 가치와 관련

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을 함께 부탁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층화무선할당표집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교사들의 경우는 설문을 실시하는 각 학교의 교사를 임의로 선정한 후, 설문을 승낙한 경우만 실시하였기에 비확률표집이었다. 이 때 한 학교에서 지나치게 많은 교사들이 표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학교당 가능한 5명 이상을 표집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표집된 경우는 6명이 표집된 경우로, 전체 140개 중 6개 학교가 6명의 교사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학교 당 1명부터 5명이 표집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로, 태도의 3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둘째는 교사들이 지닌 가치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권위주의적 공격성,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한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등 총 5개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인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존의 문헌에서 밝혀진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문항(‘거부감이 든다’, ‘게으르다’, ‘똑똑하지 못하다’, ‘폭력적이다’)들을 포함한 총 12개의 문항

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이 든다', '친절하다', '거만하다', '유능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도덕적이다', '게으르다', '합리적이다', '감정적이다', '평화적이다', '폭력적이다' 등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산출은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 6문항,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 6문항에 대해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여 긍정적 인지점수와 부정적 인지점수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인지점수가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부정적 인지점수가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하도록 되어있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중, 긍정적 태도요인은 .78이고, 부정적 태도요인은 .70이었다.

정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중 정서적 측면은 역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연민 정서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은 '정이 간다', '불쌍하다', '피하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다', '가엾다', '안돼 보인다', '싫다', '좋다', '두렵다' 등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산출은 긍정, 부정, 연민 정서를 측정하는 각 3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각 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되어있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는 .57, 부정적 정

서는 .83, 연민정서의 신뢰도는 .87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행동.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중 행동적 측면은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양계민과 정진경이 구성한 척도(2008)를 사용하였는데, 소수집단에 대해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와 결혼시킬 수 있다' 등의 총 여섯 개 문항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4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의 세 문항과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와 결혼시킬 수 있다'의 세 문항이 각각 요인으로 묶였다.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첫 요인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관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 요인은 가족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깊은 관계까지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은 '가벼운 관계' 두 번째 요인은 '친밀한 관계'로 명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두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95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교사가치

권위주의적 공격성. 권위주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경환(1989)이 개발한 '한국판 권위주의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권위주의성

격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3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항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응답의 성실성 및 집중도 저하의 문제가 우려되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지배지향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권위주의적 공격성’만을 포함시켰다(Passini, 2008; Whitley, 1998).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8이었다.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불확실성회피 경향성은 Hofstede(1995)의 이론에 근거하여 양계민과 정진경(2005)이 제작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문항-척도간 상관관이 떨어지는($r=.012$) ‘나는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을 삭제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모험을 좋아한다’, ‘나는 색다른 것에 호기심이 많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있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었다. 9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한 것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제작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72였으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1로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양계민(2009b)의 한민족정체성 측정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한민족정체성은 크게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순혈주의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민족 정체성’이다. 순혈주의정체성은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데 대

한 자부심과 관련된 문항으로,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민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내적 합치도(ρ)는 .84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문화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종교와 사상을 꽃피운 자랑스런 민족이다’,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나는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의 문화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각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민족정체성과 순혈주의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민족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는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민족중심주의’척도로 원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책임이 따르는 일보다 수공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일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사람들에게 적당하다’는 문항은 개념상 자민족중심주의라고 보기에 타당하지 않는 문항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포함하고 있기에 삭제하고, 나머지 5문항인 '지구의 자연환경 보호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일이 우선이다', '세계 인류를 위한 일이라도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 문화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었다. 모든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자민족중심주의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에서 '종족적 배제주의'라고 정의한 개념의 한 가지 하위요인으로 황정미 등(2007)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으로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결 과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교사 성별 차이

우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및 소수집단 고정관념과 관련된 가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성별,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및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가치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태도 중 부정적 인지 및 정서요인이었다. 즉,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부정적 인지 태도가 높았고, 동시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가치 중에서는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순혈주의 정체성,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강하고, 순혈주의 정체성이 높으며 자민족 중심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교사 연령별 차이

두 번째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소수집단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 정서, 행동상의 연령집단별 일원변량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부정적 인지, 부정적 정서 및 연

표 2.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성별 차이

	하위요인	남(N=191)	여(N=247)	t
태도	인지긍정	3.20(.42)	3.22(.38)	-.58
	인지부정	2.63(.44)	2.54(.46)	2.14*
	정서긍정	3.13(.46)	3.06(.47)	1.44
	정서부정	2.37(.61)	2.31(.64)	1.10
	정서연민	2.88(.73)	2.70(.77)	2.40*
	가벼운 관계	3.68(.62)	3.74(.65)	-.96
	친밀한 관계	2.90(.86)	2.86(.96)	.49
가치	권위주의적공격성	2.94(.42)	2.76(.52)	3.34***
	불확실성회피	2.68(.42)	2.65(.44)	.80
	문화민족정체성	3.84(.68)	3.87(.61)	-.57
	순혈주의정체성	3.28(.86)	3.08(.75)	2.63**
	자민족중심주의	2.86(.79)	2.63(.71)	3.19***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3.57(.73)	3.52(.66)	.74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연령별 차이

	하위요인	20대(N=78)	30대(N=131)	40대(N=173)	50대 이상(N=52)	F
태도	인지긍정	3.21(.41)	3.22(.41)	3.22(.39)	3.17(.37)	.24
	인지부정	2.48(.56) _b	2.55(.50) _{ab}	2.61(.39) _{ab}	2.68(.34) _a	2.36
	정서긍정	3.13(.47)	3.05(.47)	3.09(.45)	3.12(.49)	.58
	정서부정	2.21(.73) _b	2.31(.59) _{ab}	2.37(.63) _{ab}	2.50(.51) _a	2.51
	정서연민	2.64(.82) _b	2.75(.79) _{ab}	2.84(.73) _{ab}	2.91(.64) _a	1.80
	가벼운 관계	3.85(.69)	3.71(.60)	3.67(.65)	3.67(.62)	1.54
	친밀한 관계	2.99(1.06)	2.89(.91)	2.86(.92)	2.74(.73)	.79
가치	권위주의적 공격성	2.67(.50) _c	2.85(.56) _b	2.84(.55) _b	3.03(.51) _a	4.59**
	불확실성회피	2.59(.38) _b	2.66(.45) _{ab}	2.67(.45) _{ab}	2.76(.37) _a	1.56
	문화민족정체성	3.95(.61)	3.86(.66)	3.79(.63)	3.92(.68)	1.28
	순혈주의정체성	3.10(.81) _b	3.09(.86) _b	3.18(.77) _b	3.44(.74) _a	2.66*
	자민족중심주의	2.53(.82) _c	2.61(.73) _{bc}	2.80(.71) _b	3.03(.78) _a	6.17***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3.47(.68)	3.63(.67)	3.51(.72)	3.56(.67)	1.06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a > b > c$

민정서 세 가지 태도변인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대 이상 교사집단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지, 부정적 정서 및 연민정서가 가장 높고, 20대 교사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록 *F*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 연령의 교사집단이 20대 교사집단에 비해 부정적 태도 및 연민정서가 높은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담당학교 급별 차이

다음으로 학교 급별 교사들의 태도 및 가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정서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교

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민족 정체성도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성 역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중 가벼운 관계를 수용하겠다는 행동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Duncan 검증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점수가 높아 더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접촉여부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현재 재직 중

표 4.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담당학교 급별 차이

	하위요인	초등학교(N=52)	중학교(N=188)	고등학교(N=200)	<i>F</i>
태도	인지긍정	3.29(.39)	3.19(.35)	3.20(.44)	1.25
	인지부정	2.52(.48)	2.61(.44)	2.57(.47)	.90
	정서긍정	3.29(.50) _a	3.06(.46) _b	3.07(.46) _b	5.45**
	정서부정	2.24(.59)	2.33(.64)	2.36(.63)	.73
	정서연민	2.90(.83)	2.68(.78)	2.84(.71)	2.92
	가벼운 관계	3.88(.48) _a	3.66(.67) _b	3.72(.64) _{ab}	2.33
	친밀한 관계	2.90(.91)	2.82(.92)	2.93(.93)	.72
가치	권위주의적 공격성	2.89(.46)	2.78(.57)	2.88(.54)	2.02
	불확실성회피	2.69(.44)	2.68(.42)	2.64(.44)	.57
	문화민족정체성	4.02(.60) _a	3.90(.65) _{ab}	3.78(.63) _b	3.68*
	순혈주의정체성	3.21(.78)	3.26(.81)	3.07(.82)	2.65
	자민족중심주의	2.77(.76)	2.69(.75)	2.75(.76)	.47
	다문화사회긍정성	3.72(.67) _a	3.45(.64) _b	3.57(.74) _{ab}	3.57*

* *p*<.05, ** *p*<.01, Duncan: a>b

표 5.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의 접촉여부에 따른 차이

	하위요인	비접촉 학교(N=394)	접촉 학교(N=46)	t
태도	인지긍정	3.21(.40)	3.16(.35)	.92
	인지부정	2.57(.47)	2.68(.36)	-2.08*
	정서긍정	3.10(.47)	3.03(.41)	.96
	정서부정	2.31(.63)	2.53(.59)	-2.24*
	정서연민	2.76(.75)	2.96(.80)	-1.66
	가벼운 관계	3.73(.64)	3.61(.61)	1.18
	친밀한 관계	2.88(.92)	2.89(.94)	-1.10
가치	권위주의적 공격성	2.83(.55)	2.91(.52)	-.89
	불확실성회피	2.65(.43)	2.80(.43)	-2.28*
	문화민족정체성	3.85(.64)	3.95(.65)	-1.01
	순혈주의정체성	3.16(.82)	3.21(.75)	-.37
	자민족중심주의	2.72(.77)	2.78(.60)	-.50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3.53(.79)	3.60(.62)	-.63

* $p < .05$

에 있는 학교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접촉학교의 교사들이 부정적인 인지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부정적인 정서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태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는 비접촉 학교와 접촉 학교 간에 차이가 없었고,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에 있어 접촉학교 교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혈주의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간의 관계

권위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혈주의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등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가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위주의경향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회피 경향성이 높고 순혈주의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높을수록 순혈주의 정체성과 자민족 중심주의 경향은 높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순혈주의 정체성 및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순혈주의 정체성이 높을수록 자민족중심주의는 높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문화민족정체성 및

순혈주의 정체성이 높지만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권위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혈주의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요인의 상관관계

	권위주의	불확실성 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혈주의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불확실성회피	.19***				
문화민족정체성	.08	-.03			
순혈주의정체성	.20***	.18***	.42***		
자민족중심주의	.39***	.18***	.31***	.43***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08	-.17***	.05	-.18***	-.13**

** $p < .01$, *** $p < .001$

표 7. 교사들이 가지는 가치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긍정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24	5.14***	.063	-	
	문화민족정체성	.14	2.88**	.082	.019**	
인지	권위주의적 공격성	.21	3.98***	.069	-	
	자민족중심주의	.11	2.08*	.082	.013*	
정서	불확실성회피	.10	2.00*	.090	.009*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14	2.93**	.029	-	
	문화민족정체성	.15	3.18**	.053	.024***	
	불확실성회피	-.10	-2.05*	.062	.010*	
부정	권위주의적 공격성	.19	3.89***	.047	-	
	불확실성회피	.18	3.74***	.079	.032***	
연민	권위주의적 공격성	.17	3.49***	.029	-	
행동	불확실성회피	-.23	-4.82***	.079	-	
	가벼운 관계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14	2.98**	.103	.024***
	문화민족정체성	.14	2.81**	.113	.010*	
	자민족중심주의	-.11	-2.20*	.123	.010*	
	친밀한 관계	순혈주의정체성	-.23	-4.95***	.072	-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22	4.69***	.119	.047***		

* $p < .05$, ** $p < .01$, *** $p < .001$

교사들이 지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 관련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권위주의적 공격성,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혈주의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및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긍정적 인지태도에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과 문화민족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인지태도에는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자민족중심주의 및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태도에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및 문화민족정체성,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태도에는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이, 연민 정서에는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 중 비교적 가벼운 관계에는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다문화사회의 긍정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인이나 가족관계까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에는 순혈주의정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접촉여부별로 분석하고,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중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우선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지태도 및 연민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여자교사들이 남자교사들에 비해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존중감이 더 높고, 이웃으로서의 수용가능성 및 직장동료로의 수용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남자교사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치와 관련해서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권위주의 경향성, 순혈주의정체성 및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보수적 가치가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그대로 전달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남자 교사들 대상의 다문화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교육의 내용에서 순혈주의가치의 문제점 및 권위주의 경향성이나 자민족중심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령별 비교에서는 50대 이상의 비교적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보다 젊은 교사들보

다 권위주의적 경향성이 높고, 순혈주의정체성 및 자민족 중심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학교현장에 적용해 본다면 비교적 연령이 낮은 20대 또는 30대 교사가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 교사에게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담당학교급에 따라 교사들의 태도 및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학교급간 차이가 없었지만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고 가벼운 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민족 정체성과 다문화사회의 다양성 수준 등 긍정적 가치의 점수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점수가 높았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대다수가 초등학생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에도 역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태도 및 가치가 다른지 비교한 결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비접촉 학교에 비해 오히려 부정적 인지와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집단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경우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다문화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권위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혈주의정체성 및 자민족중심주의가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 정서 및 행동 측면의 태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사회의 긍정성과 문화민족정체성이었고,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었다. 이는 교사대상의 다문화교육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로,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 다문화사회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하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권위주의적 성향이나 불확실성 회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교육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사대상 다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를 선정할 때, 미리 성격 검사를 한다든지 등의 사전 선정과정을 거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문화민족 정체성이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문화민족 정체성은 한민족 정체성의 하위 요인으로 크게 보면 한민족정체성인데 순혈주의정체성과는 달리 오히려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

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보았을 때, 불확실성 회피경향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낮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성과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가벼운 수준의 관계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다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순혈주의 정체성이 낮고 다문화사회 다양성이 높을수록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잘 나타내주는 결과로 생각되는데, 친구나 이웃, 동료로 지낼 때는 불확실성 회피나 자민족 중심주의 등의 가치가 작용하나,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는 결국 순혈주의정체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가족 등으로 섞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 측면으로, 국내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의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 해도 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체인 교사를 대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들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단순접촉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수용

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의 측정 결과 가벼운 관계와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다른 가치가 개입되고 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지닌 순혈주의 정체성이 친밀한 관계형성을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현실적 측면으로,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논의하자면 우선 교사 대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이주 노동자 자녀 등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담당 학급에 있을 때 학급 내에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지, 교사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통찰하여 수정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교사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교사가 아니라 유아 교사들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유아들의 경우 만 2세만 되어도 이미 성이나 민족에 관한 문화적 조망을 시작하고, 다양성 및 차이를 인식하며,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되며 만 4세만 되어도 이미 정형화된 성역할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내면화할 수 있기에(Deman-Sparks & A. B. C. Task Force, 1989),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빠른 시기의 심도 깊은 다문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배치함에 있어, 비교적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개방적인 가치를 지닌 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

면 나이 많은 남자교사보다는 젊은 연령의 여자교사가 국제결혼가정 자녀 뿐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권위주의경향성이나 불확실성 회피경향성 등의 가치가 비교적 약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온 변인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그 설명량은 비교적 적었다. 이는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가치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의 하나이고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교사들을 좀 더 많이 표집하여, 접촉 수준에 따른 심도 깊은 분석을 했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접촉의 빈도 및 관계의 질 등 다양한 접촉수준을 고려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김옥순, 전성민 (2009). 초등교사의 문화간 감수성 조사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59-83.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설동훈,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 (1999). 권위주의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양계민 (2009a).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양계민 (2009b).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7-115.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8-R07.

유영식 (2009). 다문화교육과정 개발모형에 입각

- 한 프로그램이 다문화인식과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우 (2007).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정관념 :사회과 예비교사 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39(1), 153-178.
- 장보윤 (2009).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외국인 집단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태도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숙, 박혜정 (2005). 자민족중심주의, 패션 선도력의 관계 및 명품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1), 1498-1506.
- 정선희 (1997).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육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충옥, 모경환 (2007). 경기도 초·중등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39(4), 163-190.
- 최현주, 정진경 (1996). 도식의 사용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성 도식과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1), 71-183.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청소년의 타민족문화에 대한 태도 및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보고 02-R06. 임성택, 주동범, 김희진.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47-92). San Diego: Academic Press.
- Banks, J. A. (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3rd ed., Boston: Allyn & Bacon.
- Benne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MA: Person Education, Inc.
- Block, J., & Block, J. (1951). An investigation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19, 303-311.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Miene, P. K., & Haygen, J. A. (1994). Matching messages to movies in persuasion: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3), 1129-1149.
- Cunningham, J., Dollinger, S. J., Satz, M., & Rotter, N. (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prejudice against AIDS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9, 165-167.
- Demian-Sparks & A. B. 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 C: NYEAC.
- Duncan, L. E., Peterson, B. E., &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41-49.
-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 Social Survey*.
- Frenkel-Brunswik, E. (1949).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8, 108-143.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Ed.),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61-89). San Press.
- Gomez, R. A. (1991). Teaching with multicultural perspective. *ERIC Digest* [Online].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Companies.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Levine, L. A., &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NY: John Wiley & Sons.
- McFarland, S. G., & Adelson, S. (1996). *An omnibus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itical Psychology.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McFarland, S. G., & Adelson, S. (1997). *Toward of typology of prejudiced pers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olitical Psychology. Montreal, Quebec, Canada.
- Mooji, M. D., & Hofstede, G. (2002).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consumer behavior: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tailing. *Journal of Retailing*, 78, 61-69.
- Noonan, J. R., Barry, J. R., & Davis, H. C. (1970). Personality determinants in attitudes toward visible dis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38, 1-15.
- Passini, S. (2008). Exploring the multidimensional faces of authoritarianism: Authoritarian aggress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7(1), 51-60.
- Peterson, B. E., Doty, R. M., & Winter, D. G. (1993).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contemporary social iss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174-184.
- Rhyn, L. C., Teagardenm M. B., & Panhuyzen, W. V. (2002). Technology-based competitive strategies: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dimensions to new product innovation.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3(2), 249-278.
- Rokeach, M. (1948). Generalized mental rigidity as a factor in ethnocentris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 259-278.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harma, S., Shimp, T. A., & Shin, J. (1995). Consumer ethnocentrism: A test of antecedents

- and moderator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3(1), 26-37.
- Shimp, T., & Sharma, S. (1987). Consumers ethnocentrism: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CETSCA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August, 280-289.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Whitley, B. E.,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44-170.
- Whitley, B. E., Jr. (1998).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s independent dimensions of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10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원고접수일 : 2010. 2.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0. 3. 16.

최종게재결정일 : 2010. 4. 12.

The Influence of the School Teachers' Values on Attitude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was explored for two purposes. The first was to examine the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the second was to find the influence of the school teachers' values on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or the purpose, 440 teachers fro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males had negative cognitive attitude and feeling pity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they were high in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pure-blooded ethnic identity, and ethnocentrism. Second, age of 50 over group were hig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pure-blooded identity and ethnocentrism than the younger groups. Third,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more positive emotional attitude and higher civilized ethnic identity and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tha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Fourth, the teachers in the schools including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ere more negative cognitive, negative emotional attitudes, and high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than the opposite. Fifth, in posi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civilized ethnic identity were influencing factors, but, in the nega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and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were influencing factors. Lastly, in behavioral attitude,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civilized ethnic identity and ethnocentrism influenced to a-little-close relationship formation, but, in close relationship formation, pure blooded ethnic identity and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wer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instruction of the stud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teach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ttitude toward minority, stereotype, social value, multicultural education.